

특종

케냐 세계사회포럼
현지 보도

8면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 베네수엘라 대안 정당 논쟁

5면

-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이라크 신전략의 위험한 앞날

한미FTA를 저지하라

여성 차별의 기원

3면

2면

7면



29호 2007년 1월 27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맛불

값 600원

열우당 붕괴는 사필귀정

신당?

화장만
고치는 사가극

진정한 진보 대안을 건설하자!

마녀사냥 중단하고 연행한 전교조 교사들을 석방하라!

20일 보안경찰은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한 편의 코미디다. 두 교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응답해 <조선일보>는 “‘사상의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탄압의 빌미를 잡기 위해 두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소지·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

상·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토론할 문제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안경찰이 압수 목록으로 나열한 글들은 대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의 내부 토론용 자료들이다. 보안경찰은 비공개 카페를 몰래 불법 사찰해 온 것이다.

우익은 이른바 ‘전교조 지침서’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침서’ 내용을 거두절미해 ‘북한 찬양 세뇌교육 지침’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공식 문건도 아닐 뿐더러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

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우익들이 조장해 놓은 편견에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북한 핵실험이나 선군정치 등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이지 적극적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지금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독재 찬양과 반공주의, 친제국주의 사상을 ‘편향적으로 세뇌’해 온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탄압은 ‘일심회’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집권당 정치 위기의 원인을 마녀사냥에 의한 속죄양 삼기로 호도하려는 계책이다.

당시에 좌파가 ‘일심회’ 마녀사냥에 제

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탄압을 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교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맛불>

http://www.counterfire.or.kr

<맛불> 온라인 기사

http://www.counterfire.or.kr

케냐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의 목소리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아프리카 활동가들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를 고발하고 연대를 호소한다

공공통합연맹 출범

지난 1월 19일 출범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의 쟁점들과 앞으로 공공·운수산업 노조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러시아 혁명 90주년 기념 토론회

20세기를 이해하는 열쇠 -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참가비: 3,000원 |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 | atgmail@nate.com | http://www.alltogether.or.kr

2월 4일 일요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1:00~2:40 제정 러시아와 10월 혁명

3:00~4:40 내전과 소비에트 러시아

5:00~6:40 스탈린 반혁명과 스탈린주의 러시아

* 10:30~12:00 에이겐슈테인 감독의 ?10월? 상영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한울),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책갈피) 저자

최일봉 주간 <맛불> 편집자,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책갈피), <개량주의와 변혁전략> (다함께), <개량인가 혁명인가> (다함께) 저자.

인용해도 될까요?

“그들[이라크 정부]이 일을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내가 더 힘들어졌다. … 사담 후세인을 처형하는 이라크 정부의 방식이 어설프다고 느꼈고 실망했다.”

— 조지 부시의 푸념

한나라당 이주영: “서초동 93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3개월 뒤 장모에게 이전했는데 위장전매 아닌가? 매연과 소음이 심하고, 햇볕도 잘 안들고 … 그런 아파트에 장모를 모셔도 되나?”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장모께서는 노인이고, 매연이나 이런 것을 좀 마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다.”

이주영: “90평 아파트에 장모님 혼자 거주하나.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는 아니지 않은가?”

이강국: “그 분은 좀 특별하다.”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69년 3선개헌, 72년 유신헌법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했다. … 미국 국민들이 처음에는 다 이라크 파병을 동의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 개헌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라는 노무현

“[박종철] 20주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종철이 원했을 민주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지금 하늘에서 박종철이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있을지 모른다.”

— 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중앙일보>

“사회적 약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마음 씀씀이가 살갑다. … 기차는 어려운 이웃들의 꿈도 함께 싣고 달리는 것 …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나눔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 KTX 여승무원을 대량 해고한 철도공사 사장 이철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강동훈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 · 자동차 · 의약품 · 섬유 · 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 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에 대한 쇠고기 무역 기준이 완화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한다는” ‘묘안’을 제시했고, 미국 의원들은 이를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1월 7~8일 하와이에서 양국 협상 대표들이 비밀리에 만나 회담을 했는데, 이는 이제 공식 협상(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협상)은 요식절차가 됐고 핵심적인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와중에 <한겨레>, <프레시안> 등이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공개해 정부의 협상 의도를 알리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치열한 외교 전쟁에서 … 작전 계획을 적군에게 넘겨주는 일은 간첩죄나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대중의 삶을 망가뜨릴 협정을 밀실에서 거래하려는 것이야말로 “범죄 행위”다. 이들이 문서 공개를 비난하는 핵심 이유는 “국내의 당사자들이 별때처럼 일어나 반대에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서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기 어

렵다”며 한미FTA에 대한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 하고, 한미FTA 반대 광고와 집회를 불허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한다.

민주주의 기본권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협상 내용은 한미FTA의 핵심이 무역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무역구제 분야는 …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카드]”라고 한다. 무역구제가 핵심 목표인 양 홍보하던 것과는 완전히 판판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 우리측 요구 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FTA 협상 전체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 구

조조정으로 “경제 효율성과 체질 개선”을 이루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혔다.

따라서 협상 대표들이 큰 이견 없이 합의한 투자자-정부제소제도 · 서비스 · 투자 · 경쟁 부문 등이 오히려 진정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대표들은 “공공서비스의 유지 · 보수에도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런 분야에 뛰어들 의사를 드러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리고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빅딜’이 성사된 협상안이 나온다면 의료비 폭등 · 배기가스 규제 완화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우리의 환경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물론 한미 양국 자본가들 사이

의 이해관계 충돌이 해결되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인 캐런 바티아는 “FTA 협상에 따른 양국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도 “한미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며 협상 타결에 목매고 있고, 한국과 미국 재계 대표들도 노무현과 부시에게 한미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해 달라는 공동 서한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한미 양국의 지배자들이 협상 타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미FTA를 좌절시키려는 항의 운동도 최대한 힘을 결집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의 주장처럼 “끝장 투쟁을 통해 한미FTA를 중단시키는” 광범한 대중동원이 필요하다.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정원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한미FTA 문서 유출을 두고 “협상 전략을 까보이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자해 행위”라며 유출자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을 지목하는 마녀사냥에 나섰다. 국정원은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밀문서’의 내용은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 무역구제에서 정부는 계속 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금융서비스 관련 부분도 금융 협상 책임자가 <나라경제>(정부 산하 기

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월간지)에 그대로 게재했던 내용이다. 유출된 문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의원 이해훈도 “공개회의 때부터 배포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대외비 문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정도다.

공개회의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국가 기밀 유출’이라며 마녀사냥에 나선 것은 한미FTA 반대 투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속죄양 삼기이며,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막판 타결을 위해 “밀실회담을 강화 … 하려는 것”이다.

설사 심상정 의원이나 다른 누가 문서를 유출했더라도, 이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최근 ‘일심회’ 사건이나 이번 문서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국가 기밀’로 만들어 민중 운동을 탄압하는 데 쓴다.

‘일심회’ 마녀사냥 때 이런 논리가 일부 먹혀들자, 지배자들은 거듭 이 더러운 무기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심회’ 마녀사냥 때와 마찬가지로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것과 ‘국가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이라크

부시의 신전략은 필사적 도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조지 부시가 새 이라크 전략을 결정할 때 쓴 방법은 ‘이라크 스터디 그룹(이하 ISG)’ 보고서를 들고는 그 보고서 내용을 죄다 뒤집는 식이었던 듯하다.

예컨대, ISG가 2008년 초부터 미군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에서 부시는 2만 1천5백 명 추가 파병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ISG가 이란·시리아와 대화를 권유하자 부시는 그들이 이라크 저항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은 “이라크에 있는 우리의 적들에게 신형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의 표현을 빌면, “증파는 지난 30년 동안 공화당 내 양대 외교정책 분파 — 국제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 — 가 벌여온 전쟁의 가장 최근 전투였다.”

국제주의자들의 우두머리는 ISG 공동의장이자 전 국무부 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다. 그는 미국 지배계급 가운데 이라크[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에 대처하길 원하는 분파를 대표한다.

말리키

그러나 부시 정부 내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라크 전쟁의 핵심 설계자인 신보수주의자들이었다. 우익 성향인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프레드릭 케이건과 퇴역 장성인 잭 키언이 이 논쟁에서 핵심 구실을 했다.

〈승리를 선택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들은 육군과 해군 7개 연대의 “증파”를 요구했다. 결국 부시는 5개 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고, 따라서 중동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 사령관과 이라크 현지 사령관이 교체됐다.

더 놀라운 것은 부시가 이라크에 세운 꼭두각시 정부가 미군 추가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라크 총리 누리 알 말리키와 가까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말리키가 요르단에서 부시를 만났을 때, “미군을 바그다드 외곽으로 물릴 것과 적어도 수도에서의 전쟁은 이라크군에 맡겨 달라고 요구

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시의 최종 결론은 “일종의 절충, 즉 더 폭넓은 권한을 달라는 말리키 정부의 간청과 미국 관리들이 보기에 이라크에서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부시의 결단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절충이다”.

만약 미국이 가장 강력한 시아파 무슬림 민병대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마흐디군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

려 한다면 이 전략은 중대한 군사적·정치적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증파 전쟁

사드르는 바그다드 동부의 빈민가 사드르시티에 사는 시아파 빈민들의 지도자다. 그는 점령에 맞선 모든 이라크인들의 단결을 일관되게 호소해 왔고, 미국은 그를 고립시켜 제거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사드르에게는 그 나름

강경파 반미 성직자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마흐디군 — 2004년 4월 팔루자 사태 동안 남부 나자프와 바그다드 사드르시티 등에서 미군에 맞서 싸웠다

의 문제들이 있다. 그가 이끄는 30명의 의원들은 말리키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의회 다수파에 가담하고 있다. 그는 수니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동맹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가 이라크인들의 단결에 진지하게 헌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사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 바그다드에 만연한 증파적 유희 충동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사드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은 결코 만만

한 일이 아니다. 일부 미군 정보기관 관리들은 마흐디군의 규모를 6만 명으로 추산한다. “증파”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군의 규모는 15만 3천 명 수준에 머물 것이고, 이것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규모가 최대였던 2005년 말의 16만 5천 명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마흐디군

최근에 점령군이 시아파와 수니파 양쪽 모두의 저항에 직면했던 시기는 2004년 4월 팔루자 사태 동안이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듯이, “[사드르시티에서 싸운] 부대는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전투에 휘말려들었다.” 미국은 재빨리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 전략으로 물러섰고, 안바르 주(州) 같은 곳의 수니파 저항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시아파에 속한 주류 정치인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부시가 이번에는 끝장을 볼 작정인 듯하다. 이것은 그 정도 규모의 군대로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조치다. 지난 주[부시의 새 전략 발표 직후]에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는 수니파 저항세력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부시의 새 전략은 그에게 이라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전략 때문에 이라크인들과 미국인들은 모두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미국 반전 운동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 계획은 미국 반전 운동을 격분시켰다. 미국 반전 운동은 오는 1월 27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평화정의연합’(UFPJ)의 하니 칼릴은 이렇게 말했다. “유권자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부시는 — 부시의 전전략 발표 직후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

전쟁을 더 확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병사들조차 이 광기를 끝낼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부시 정부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해선 안 됩니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뜻합니다.

“워싱턴 시위 호소는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부시의 ‘증파’ 연설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위 당일] 미국 전역에서 전세 버스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껏 행진에 참가하지 않았던 주요 단체들조차 시위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시위 규모는 엄청날 겁니다.”

반/란/의/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대안 권력기구의 맹아를 탄생시키다

지난 몇 년 동안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가장 멀리 나아간 곳이었다. 특히 코차밤바는 2000년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물 전쟁’ 승리 후 볼리비아에서도 가장 강력한 투쟁 역량을 가진 곳으로 꼽혀왔다. 지금 이 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발단은 코차밤바의 우익 주지사인 만프레드 레이에스 비야가 1월 첫 주에 ‘자치’(좌파 대통령 예보 모랄레스가 이끄는 중앙 정부로부터 사실상 분리 독립을 뜻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있었다. 2006년 7월에 이미 전 국민을 상대로 지방 ‘자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코차밤바 주민의 약 63퍼센트가 자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볼리비아 동남부의 우익 주지사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은 모랄레스 정부의 천연자원 국유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치’를 요구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레이에스 비야의 도발은 이를 위한 대리전이었다.

대중은 즉각 레이에스 비야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코카 재배 농민들이 코차밤바 시내로 대거 몰려왔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가세했다. 대규모 시위대에 놀란 레이에스 비야는 우익의 근거지인 산타크루스 주(州)로 도망쳤다.

시위대가 코차밤바 중심가를 장악하자 우익 깡패들이 행동에 나섰다. 1월 11일에는 이들이 시위대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2명이 죽고 1백50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시위대를

겁먹게 만들기는커녕 이들의 투쟁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게 하는 기폭제 구실을 했다.

1월 16일 코차밤바 시내를 점거하고 ‘민중 주정부’를 구성한 대중은 그 자리에서 투표로 레이에스 비야를 해임하고 새로운 민중 주지사를 선출했다. 이것은 2006년 멕시코 오아하카(일부 언론에서 영어식으로 ‘오악사카’라고 표기함) 같은 ‘이중권력’ 상태가 시작됨을 뜻한다.

오아하카

유감스럽게도 모랄레스 정부의 주요 인물들 — 모랄레스뿐 아니라 알란 가르시아 부통령 등 — 은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중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지사를 그런 방식으로 해임할 수 없

다”고 비판했다. 모랄레스는 대중이 “폭력을 피하고” 국민소환제라는 합법적 수단의 도입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가 집권하고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과 2005년 악법을 무시한 대중의 단호한 투쟁 덕분이었다. 그리고 레이야스 비야를 대중이 불신임하고 해임한 것은 국민소환의 정신을 실천한 완전한 민주적인 행위다.

무엇보다, 우익이 대중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치적·물리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 권력기관의 해체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승리 축하 행사에 참석한 지지자들 앞에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하나의 정당이 필요하지만, 그 정당은 잡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잡탕 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나 늘어놓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당이 토론과 논쟁의 공간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후보를 기층에서 선출하는 민주적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MVR의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지명했고, 차베스 지지 정당들은 선거 동원 기구나 다른 없었다. 정치 강령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

차베스가 제안한 변화가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구체제에서 만연했던 부패나 비리가 차베스 지지 정당들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용욱

카리카스에서 스티브 매더(Steve Mather)가 우고 차베스의 새 정당 결성 계획이 좌파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새로운 ‘통합사회주의당’(PSUV)을 건설하기 위해 현 집권 정당인 ‘제5공화국운동당’(이하 MVR)을 해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대한 베네수엘라 좌파의 반응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승리 축하 행사에 참석한 지지자들 앞에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하나의 정당이 필요하지만, 그 정당은 잡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잡탕 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나 늘어놓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MVR의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지명했고, 차베스 지지 정당들은 선거 동원 기구나 다른 없었다. 정치 강령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

차베스가 제안한 변화가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구체제에서 만연했던 부패나 비리가 차베스 지지 정당들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실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차베스 지지 정당의 당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차베스의 제안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은 꽤 있다. 미겔 라고스는 카라카스의 바리오(빈민가)인 페타레의 활동가이다.

그는 새 정당이 혁명적 과정에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당이 올바르게 건설된다면,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미겔은 이렇게 말했다. “[새] 정당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경향들이 연대와 존중의 분위기에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상을 발전시키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사회·정치 조직이 당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전국노동자연맹(UNT)(베네수엘라 판 민주노총)의 더 비판적인 분파인 ‘통합적·계급적·혁명적·자주적 경향’(C-CURA)의 지도자인 올란도 치리노도 새로운 혁명적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차베스가 제안한 정당이 어떤 종류의 정당인지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혁명적 정당이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려면 내부에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하고 노동자들을 핵심 중추로 삼아야 한다.”

국유화

그러나 모든 활동가들이 통합정당 구상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기층 정치운동가인 롤란드 테니스(Roland Denis)는 차베스의 구상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새 정당이 현재의 혁명적 과정에서 생명력을 마비시키고 질식시킬 수 있는 상명하달식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차베스가 비록 좋은 의도로 제안했는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를 얻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롤란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쿠바의 사례가 차베스의 구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쿠바에서는 정당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민중의 단결을 보증하고, 사회주의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건설된다.”

이것은 차베스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카라카스 빈민가의 많은 기층 운동가들은 딱히 롤란드의

정당관에 동의하지 않지만 차베스의 구상에 매우 회의적이다.

차베스는 자신의 제안의 장점을 이들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몇몇 긍정적 발전이 있다. 차베스는 주요 통신기업과 가스·전력 회사 국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어떤 민주적 논쟁도 없이 발표됐다. 차베스는 “혁명을 심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그밖에는 이렇다 할 공약이 없었다.

새 정당 안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국유화, 국유화된 기업들의 관리 방식, 국유화된 기업 안에서 노동자의 지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겔에 따르면, 이 때문에 새 정당 건설이 중요하다. 그는 당 건설 과정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서 대중이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당 건설 과정 외부에서 불평이나 늘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스티브 매더는 베네수엘라 관련 웹사이트 www.venezuelanalysis.com의 기고자다.

베네수엘라 운동의 두 가지 정신

조지프 추나라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투쟁은 우고 차베스와 우익 반정부 세력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볼리바르 식 운동 내부의 투쟁이다.

이 운동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 첫째 정신은 잇따라 폭발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신은 차베스 진영에 빌붙은 정당들·정치인들·관리를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 그들은 위에서 선사하는 개혁을 수동적인 대중이 그저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만을 바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차베스는 새로운 ‘통합사회주의당’ 결성을 선언했다. 차베스는 그 당이 아래로부터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당이 “낮익은 얼굴들의 총집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제안에는 차베스의 좌절감이 담겨 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자신의 목표가 느리게 진척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의 좌절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다. 베네수엘라 경제에는 국영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존한다.

두 부문 모두 석유 판매에서 얻는 막대한 이익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둘 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

국가 기구는 — 정부 각료들뿐 아니라 공무원들·경찰·군대·사법부도 — 여전히 베네수엘라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서로 다른 국가 부문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국유화된 회사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반면, 재무부 장관은 자본가들을 안심시키려 애쓴다.

흔히 국가 기구는 진보적 개혁들을 사보타주한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향해 결정적으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낡은 국가 기구가 분쇄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돼야 한다. 이 노동자 국가는 지역사회와 작업장

에서 건설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전해 나올 것이다.

둘째, 사회 기층민들이 핵심 산업인 석유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기업주들이 2002~2003년에 산업을 마비시켜 차베스를 전복하려 했을 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이런 종류의 노동자 권력이 잠시 나타났었다.

차베스의 발의로 창설된 1만 6천 개의 자치평의회들과 노동자 경영 실험들은 이런 일이 훨씬 더 광범하게 일어나는 틀이 될 수 있다.

셋째, 베네수엘라에는 혁명정당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를 아래로부터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혁명정당 말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혁명적 과정은 항상 불균등하다.

혁명정당은 소수파의 정당으로 시작한다. 오직 격렬한 계급투쟁 시기에만 혁명정당은 다수파의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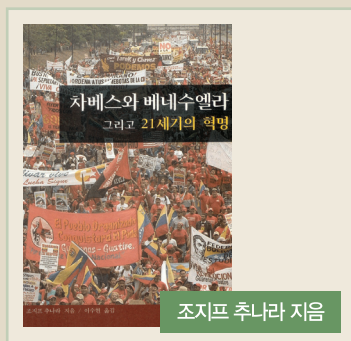
불균등성

차베스의 제안이 베네수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종류의 혁명정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잘해야 차베스의 제안은 운동의 불균등성을 반영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에 획일적인 비전을 강요하려 할 수 있다.

차베스는 새 정당이 운동의 두 가지(각각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 정신을 모두 포함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혁명가들은 이 논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정당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볼리바르 식 운동의 수많은 기층 활동가들과 혁명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음 호에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과정을 더 심층 분석한 크리스 하먼의 글이 실릴 예정이다



조지프 추나라 지음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인종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삼성에스원 해고 노동자 투쟁

삼성 공화국에 정면으로 맞서다

지난 19일, 삼성에스원(세콤) 해고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 무풍지대'인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날 집회는 삼성의 갖은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삼성은 그 동안 모든 본관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남대문 경찰서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거짓 집회 신고를 내왔다. 그러나 에스원 노동자들은 3일 밤을 샌 끝에 새벽 0시를 기해 제일 먼저 집회 신고를 내는 데 성공했다. 통과하게도, 삼성은 적지 않은 언론들이 에스원 노동자들의 이례적 삼성 본관 앞 투쟁 소식을 보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삼성이 '허를 찔렀다'며 통탄했다.

삼성은 이 날 집회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오전에 열린 삼성에스원 공동대책위 기자회견도 철저히 탄압했다. 경찰은 30여 명이 참가한 기자회견에 3백 명이나 되는 전경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경비업법 유권해석으로 이번 1천7백 명 해고 사태의 명분을 제공한 '삼성 공화국'의 '삼성 경찰'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집회에는 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김오근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법제처에서도 경찰청의 경비업법 위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삼성에 휘둘리는 '선무당' 경찰과 삼성 자본에 맞서 끝

삼성에 맞선 투쟁의 구심을 만들고 있는 에스원 해고 노동자들

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삼성에 맞선 투쟁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회에는 신세계이마트분회, 삼성코레노 노조추진위원회, 삼성SDI와 삼성생명 부당 해고 노동자 등 삼성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

동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견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가 출교당한 고려대 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X파일 사건이나 삼성의 편집권 침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 노동자들, 비민주적 성균관대 당국과 삼성 재단의 손을 들어준 판사에게 석궁까지 쏜 해직 교수 등의 사례를 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오만함에 분노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삼성에 맞선 저항들이 연대를 구축하고 계속 끈질기게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오는 2월 2일, 삼성 본관 앞에서 또 한 번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많은 연대 단체 참가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삼성에스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삼성 무노조 신화에 맞선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개강 맞이 강연회

2007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8가지 주제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의 저자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 <프레시안> 기획위원)

우석균(의사 / 보건의로단체인합 정책실장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활동가) 등

여러 진보적 연사들이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이라크 전쟁 4주년, 기후 변화, 한미FTA,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등 8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7학번 신입생 여러분과 대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립니다.

2007년 3월 10일~11일

참가 문의: atgstudent@hanmail.net / 02-2271-2395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여성 차별은 당연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샐리 캠벨(영국 사회주의자)

여성 차별은 가장 뿌리 깊은 천대(억압)이다. 그것은 보통 생물학적·심리적·보편적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여성 차별을 이해하고 맞서 싸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맑스주의자들은 여성 차별 문제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유물론적 관점에 따르면, 역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직접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 그 하나는 생계수단, 즉 의식주의 생산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 하고 말했다.

인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한다.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세계의 어느 곳에선 적응할 수 있다는 것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사회 편제 방식이 계급 억압적이지도, 지배와 차별이 분명하지도 않았음을 증명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가장 이르게 잡아도 2백만 년 전에 나타났고,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기간은 기껏해야 20만 년에 불과하며, 농업은 겨우 1만 년 전에야 시작됐다.

이 채집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좀더 선진적인 농업이 발전하면서 변했다. 쟁기의 발명으로 공동체의 당장의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잉여’를 관리하는 특권층이 생겨났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구실도 완전히 변했다.

사유재산

수렵·채집 사회와 원예 사회에서 여성은 재생산에서 자신의 구실을 하면서도 생산자 구실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경(深耕)과 가축의 사용으로 상황이 변했다. 임신부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은 이런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고, 점차 남성에 종속됐다.

농업이 발달하자 일손도 더 많이 필요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자원 고갈을 피하기 위해 아이의 수를 제한했지만, 농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밭일을 도우면 그만큼 더 생산적이었다. 그래서 남성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됐고, 여성이 주로 할 일은 아이 낳는 것으로 바뀌었다.

생산성 향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득이었다. 그러나 소수가 잉여를 통제하자 불평등과 계급이 생겼다. 사회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됐고, 여성은 주로 ‘사적’ 영역을 담당했다.

사적 가족은 개인 재산이 세대를 거쳐 세습되는 장치가 됐다. 이것은 여성 지위의 최종적 격하를 가져 왔다. 남성은 경제적 구실 때문에 가장(家長)이 되고,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했다. 엥겔스는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남성은 가정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됐다. 여성은 노예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족은 계급 발전의 결과지 영원한 ‘자연적’ 위계질서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생산의 목적이 점차 사용에서 교환으로 바뀌자 가정은 생산 단위에서 소비 단위로 변했다.

엥겔스의 주장은 경제의 변화가 계급사회와 억압과 차별을 낳았음을 증명했다. 이는 인류가 오늘날 그런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시니오라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항의해 벌어진 시위 – “레바논인들의 가난은 시니오라 때문이다”

고조되는 레바논 정치 위기

부시 정부가 이란 위협과 함께 레바논 헤즈볼라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월 10일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부시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CIA의 공작 활동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밀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CIA가 친미 시니오라 정부에 재정·병참 지원을 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레바논 내 반헤즈볼라 단체들과 친정부 활동가들에게도 자금을 대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여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끄는 저항 운동에 쓰러린 패배를 당한 바 있다. 그 뒤 시니오라 정부는 헤즈볼라가 주도하는 반정부 운동의 강력한 도전에 시달렸다.

따라서 부시의 이러한 조치들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이자 “이라크 함락 이후 커지고 있는 이란의 중동 지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데일

리 텔레그래프〉)이기도 하다. 미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레바논 정부에 미제 장갑차 2백85대를 제공할 계획이고, 이미 지난 13일 그 중 20대를 레바논 정부군에 넘겼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이끄는 반정부 진영도 시니오라 정부에 맞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정부 진영은 1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오는 23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신자유주의

이 계획은 레바논 노동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1월 4일 시니오라 정부는 서방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내놔다. 여기에는 부가세 인상, 연료와 전기에 대한 보조금 폐지, 통신·전력 부문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레바논 노총은 이미 몇 차례 정부의 이런 ‘개혁’ 조치들에 맞서 연좌 시위를 벌였고(반

정부 운동은 오히려 이 시위를 지지했다), 반정부 진영의 이번 총파업 호소에도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레바논 유력 일간지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지난 17일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부근 자우타르에서 유엔군 소속 스페인군 병사들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유엔 결의안이 규정한 유엔군 활동 지역(리타니강 남부 지역)이 아닌 곳에 유엔군이 나타나자 주민들이 물러나와 병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들고 있던 사진기를 빼앗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그들[유엔군 병사들]이 [헤즈볼라의] 무기 보관소를 염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레바논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감안할 때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레바논인들은 외국 군대를 환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용민

그리스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에 반대하다

그리스 대학생들이 그리스 전역의 2백40여 개 대학을 점거했다. 이 투쟁은 신민주주의당의 우파 정부를 좌초시킬 수 있다. 대학생들은 유료 사립대학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학생들 수만 명이 의사당을 밤 9시까지 포위했다. 그리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다.

교사노조와 대학강사노조도 24시간 파업을 벌였고, 공무원노동자, 보건 의료 노동자, 지방

정부 노동자들도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우파 정부는 그리스의 중도 좌파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 운동당(이하 사회당)의 지지를 예상하고 대학 개혁안을 내놓았다. 두 정당 모두 교육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나 대규모 저항 때문에 사회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당은 심각하게 분열했다.

대학생들이 점거한 강의실에서는 치열한 정치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논쟁의 주제는 당면한 교육 제도 공격 문제를 넘어서 우파 정부의 의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우파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정부의 다른 사유화 정책들도 위협받을 것이고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노동계급에게도 고등교육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승리하면 그리스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큰 패배가 될 것이다.

현지 특별 취재

나이로비 2007 세계사회포럼

Another World is Possible

“전쟁과 빈곤 없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2007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다함께’ 회원 **김광일·천경록** 동지가
현지의 생생한 소식과 아프리카인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1월 20일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이 개막했다. 개막 행진은 나이로비의 대표적 빈민가인 키베라에서 시작해 나이로비 도심 우후루 공원으로 이어졌다. 키베라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횡포를 훌륭하게 폭로한 영화 <콘스탄트 가드너>에도 등장하는 지역이다. 개막 행진의 슬로건은 “키베라에 평화를, 빈민가 거주민에게도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였다.

키베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웨토 등에서 온 빈민들과 농민 등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은 구호와 춤, 음악 소리로 개막 행진을 시종일관 열정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로 만들었다.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온 참가자들은 “AIDS 없는 세계가 가능하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등의 문구가 쓰인 배너와 팻말을 들거나 옷을 입고 행진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도 이들과 함께 행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영국 전쟁저지연합과 한국의 활동가 등이 포함된 반전 대열도 아프리카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조지 부시가 테러리스트”였고,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라”도 인기를 끌었다.

반전 대열은 빈곤과 전쟁 문제를 연관시킨 구호도 외쳤다. “슬럼 반대, 전쟁 반대, 부시는 꺼져라”, “전쟁 비용 1조 달러를 빈곤 퇴치에 써라.”

행진에 참가하러 온 아프리카인들 중에는 반전 팻말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것은 최근 부시의 소말리아 침공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부시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지지를 나타내며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점령은 범죄다” 하고 외쳤다.

행진에 이어 우후루 공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약 1만 5천 명이 참가했다. 아프리카 흑인억압에 맞서 싸운 가수 밥 말리의 “One Love”와 “Get Up, Stand Up”이

행사 중간에 흘러나올 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억압에 맞선 저항을 찬양했다.

또, 참가자들은 연사들이 부시의 전쟁을 비판했을 때 가장 큰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냈다.

막이 오르다

첫번째 연사였던 흑인 여성 활동가 와하 카아라(케냐 외채 탕감 네트워크)의 연설은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다.

“지금이야말로 저들의 의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외채에 반대해야 할 때다. 외채는 죽음을 뜻한다. 조건이 달린 외채에 반대할 때다…”

“부시 일당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다른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버릇을 고쳐줄 때다. 우리 중에 알카에다가 없다는 것을 말할 때다.”

타오피크 벤 압달라(아프리카사회포럼 조직위원)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아프리카에 울려 퍼진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는 더 나은 기니[현재 권위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야당의 투쟁과 노동자 파업이 진행중이다]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나타낸다. 자유를 위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명한다. 날마다 죽어가는 이라크인들에게 연대를 표명한다.” 그가 이라크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을 때 박수 소리가 가장 컸다.

다만, 개막 행진과 개막식의 규모가 적었던 것은 아쉽다. 2005년 포르투 알레그레 개막 행진은 10만 명이 넘었고,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개막식에도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이번 개막식에는 약 1만 5천 명이 참가했다.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가 개막 행진 동원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행사 직전까지도 개막 행진은 공지되지 않았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자들은 2005년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이번에도 토

론장과 각종 행사장을 주제별로 칸막이했다.

그러나 실제 나이로비 행사장의 분위기는 2005년 포르투 알레그레보다는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의 분위기에 가깝다. 여러 행사들이 모이(Moi) 경기장을 중심으로 열리기 때문에 영역 구분이 날카롭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즐거운 ‘소음과의 전쟁’이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 국제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토론과 “목소리 없던 자들의 목소리”가 이 곳을 메울 듯하다.

※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리는 흥미진진한 워크숍과 반전 총회 등에 관한 소식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아프리카참가자의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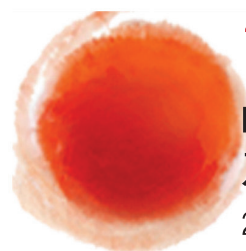
“한국 동지들의 후원 기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 동지들이 보내준 후원기금을 잘 받았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째로 아프리카의 해방과 관련한 소책자 <<아프리카 해방 운동의 새로운 국면 —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출판할 수 있었고, 두번째로 가나·보츠와나·짐바브웨·남아공 동지들의 세계사회포럼 참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금이 없었으면 많은 아프리카 동지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실업률이 40퍼센트에 달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함께 싸우는 데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우리는 정부의 사유화와 조지 부시의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제도)의 유산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보내준 기금으로 이 곳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앨런 고틀리
(남아공 - 좌파 단체 Keep Left 회원, 국제 후원 기금 총괄자)

※ 이 외에도 여러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는
국제 연대를 향하여”

Fifth Cairo Conference
제5차 카이로회의
2007. 3. 29~4.1



이집트의 저항 활동가들은 전 세계 반전 조직과 각종 단체들에게 2007년 3월 29일~4월 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제5차 카이로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년 동안 국제 반전 운동 조직, 노동조합, 급진 정당과 민족해방 운동 조직 등이 카이로회의에서 함께 어울렸고, 카이로회의는 아랍 세계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미쳐 왔다.